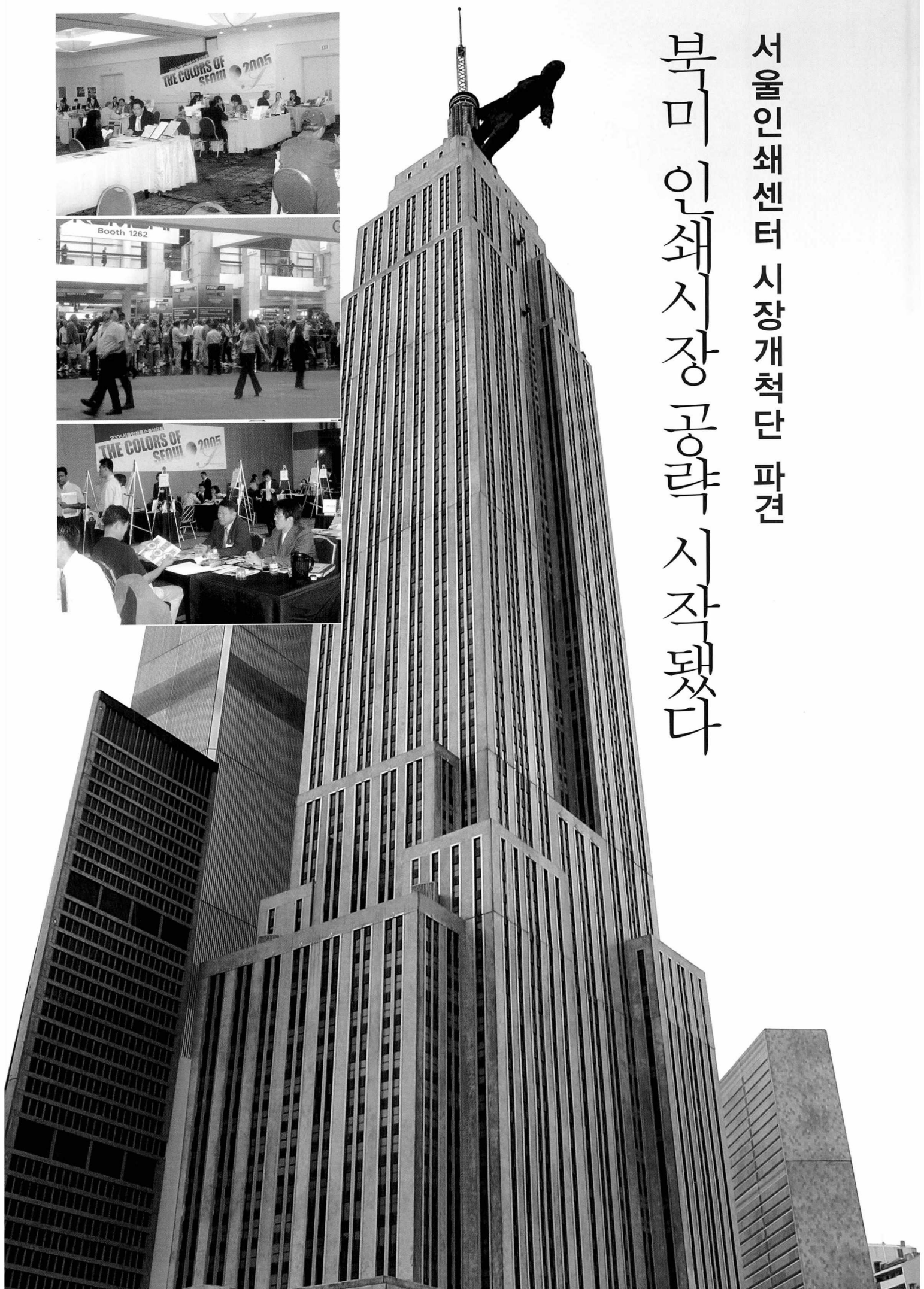


서울인쇄센터 시장개척단 파견  
북미 인쇄시장 공략 시작됐다





이충원 이사장은 각 지역 관련 단체장과 개별 면담을 가졌으며, 다양한 수출지원활동을 전개했다.

서울인쇄센터(이사장 이충원)는 지난 8월31일부터 9월12일까지 13일간 북미지역 3개 도시(밴쿠버, 워싱턴, 시카고)를 순회하는 '2005북미인쇄수출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인쇄물 신규 해외시장 개척과 선진국의 고품질 인쇄시장 공략을 위해 추진된 이번 시장개척단은 이충원 서울조합 이사장을 단장으로, 중소기업연합회 15개사 18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수출 성과가 가시적으로 달성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담당 무역관은 상담액 약 3천만달러, 수출 성사 가능액 약 50만달러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이번 시개단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설치된 각 상담장에서 개최된 종합 상담회를 비롯해 바이어 방문 직업상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개척사업을 전개했다. 또한 미주 지역 수출시장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전략 세미나도 개최했다. 아울러 시장개척단장인 이충원 이사장은 보다 포괄적인 수출 지원을 위해 각 지역의 관련 단체장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가졌으며 다양한 수출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 밴쿠버

60개 잡지회사로 구성된 브리티시 컬럼비아 잡지협회(British Columbia Asso-

ciation of Magazine Publishers)의 아나토레스(Ana Torres) 협회장과 면담 : 우리 인쇄시장개척단 파견 및 바이어 초빙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여기서 이충원 이사장은 납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지 회원사에게 시개단을 설명하고 필요 시 직접 접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기념품도 전달했다.

캐나다 한국 기업 친선협회(Canada Korea Business Association : CKBA) 모임 참석 : 약 100명 정도의 한국 캐나다 기업가로 구성된 친선협회 모임에 참석하여 한국의 인쇄물 수출시장 개척 지원을 당부했다. 캐나다 영사관의 최충주 총영사가 상담장을 방문, 시개단원들을 격려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 시카고

미국 인쇄물 수입 및 브로커협회(Printing Brokerage/Buyers Association : PB/BA), 설립자 및 전 회장인 빈센트 말라디(Vincent Mallaadi)와 조찬 모임(참석자 : 이충원 단장, 강동환 아트정글사장, 이원순 타라티피에스 사장, 이창호 센터장) : PB/BA회원수는 약 700명으로 회원 전체

의 연간 취급 금액은 50억달러에 달한다. 2006년 상반기에 약 10명의 회원을 동반, 방문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서울인쇄센터는 방문 시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시개단 브로셔를 제공하여 'Print 05 & Converting 05' 전시장에 설치한 PB/BA부스에 진열을 유도했으며 이충원 이사장은 PB/BA의 성격과 미국의 인쇄물 수출시장 공략을 위한 방법에 대하여 1시간 정도 강연했다. 또한 서울인쇄센터가 PB/BA회원에 가입함으로써 서울인쇄센터는 물론 시개단에 참가한 모든 참가회사들이 2006년에 발간할 PB/BA 회원 명부에 등재될 예정이다. 이충원 이사장은 현지 한인 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실시, 시개단 활동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향후 수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시회 참관

세계 4대 인쇄기자재 전시회 중 하나인 'print 05 & Converting 05'를 참관하고 인쇄기계 및 프리프레스 시장의 최신 동향에 대하여 정보를 입수했다.

#### 인쇄센터의 향후 지원 방안

해단식을 개최하여 참가업체들의 구체적인 상담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 관련 기관에 보고하고 개선할 점을 수렴하여 2006년도 사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도 서울인쇄센터는 코트라 현지무역관을 통한 현지시장 조사 및 자료제공, 유력 바이어와의 상담주선, 통역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외시장정보 및 관련 상품 동향 등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제경기의 하락과 내수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고 인쇄물 최대 수출시장인 북미지역을 본격 공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한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이는 서울지역 특화 산업품목인 인쇄산업 국제화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조갑준 차장)